외도 삼매와 진여삼매의 다른점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응당히 알아야 한다. 외도의 삼매는 모두가 견애(見愛)와 아만(我慢)의 마음을 여의지 못하니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탐착하기 때문이요, 진여삼매는 보는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얻었다는 상에 머물지 아니하여 선정에서 나온 뒤에도 해만(懈慢)하는 일이 없어 모든 번뇌가 점점 엷어지게 된다. 범부들이 이 진여삼매를 닦지 않고는 여래의 종성(種性)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세간의 삼매를 닦으면서 다분히 집착하여 아견(我見)에 의지해 삼계(三界)에 매여 소속되면 외도와 같아지니, 선지식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외도의 소견을 일으키기가 쉽다."

본문의 〈변마장〉 끝 부분의 말이다. 삼매에도 외도의 삼매가 있다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집착과 아만을 여의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바라며,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하는 그릇된 생각이 남아 있으면, 이는 모두 외도의 삼매라 진정한 삼매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여를 근본으로 하는 참된 삼매는 어떤 고집에도 물들지 않으며, 특별한 관념에 사로잡힌 의도적 목표도 없다. 어떤 경계를 보았다거나 어떤 경지를 얻었다거나 하는 관념의 고집에도 머물지 않는다.

앉았다가 일어나 움직이는 행동을 할 때에도 해이해지거나 태만에 빠지지도 않는다. 번뇌는 점점 줄어들어 적어지게 된다. 진여삼매라야 여래의 종성(種性)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여래종성이란 부처가 되는 종자 곧 깨달음의 종자라는 뜻으로 여래종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부처의 종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칫 세상의 그릇된 삼매에 맛 들여 '나'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에 매여 소속되어버리면 외도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 외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경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여삼매는 생멸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이다. 다시 말해 심의식(心意識)에 의한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진 경지이므로 자아관념이 일어나는 상(相)이 없다. 그런데 삼매를 닦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아만과 집착이 있고 세상에 매여 소속된다면 주관과 객관이 서로 대응하는 생멸심의 경계라 진여삼매가 아닌 것이다.

외도 삼매와 진여삼매의 차이를 밝힌 다음, 본문에서는 다시 진여삼매를 닦아 얻는 열 가지 이익을 밝히고 있다.

외도 삼매는 명리 · 공명 탐착
진여삼매, 相에 머물지 않아

①언제 어디서나 불 · 보살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곧 불 · 보살의 가피(加被) 속에 수행이 순조로워짐을 말하는 것이다.

②마귀나 악귀에 놀라지 않고 그들의 농간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수행의 방해를 극복하여 물러서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③갖가지 외도 곧 이단사상가에 현혹되지 않고, 귀신들의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 이는 수행에 임하는 정신상태가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다. 수행에도 때로는 정서적 장애가 일어난다.

④심오한 진리를 다시는 비방하지 않으며, 또 과거에 비방한 죄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장애가 점점 줄어들고 적어진다. 이는 정법을 모르고 믿지 않을 때의 죄업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⑤모든 의심과 잘못된 관념이 없어진다. 정법에 대한 확신으로 스스로의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 지는 것을 말한다.

⑥여래의 경계 곧 참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늘어난다. 이는 신심이 증대하여 여래의 경계에 가까워지면서 친해지는 것이다.

⑦근심걱정을 멀리하여 현실생활 속에서 용기가 솟아나고 비겁함이 없어진다. 이는 수행생활의 활력이 솟아나며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말한다.

⑧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교만도 없어지고 남에게 시달리는 일도 없다. 이는 저절로 인욕심이 생겨 외부와의 마찰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⑨완전한 선정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번뇌가 줄어들어 세속적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

⑩밖으로부터 오는 충격에 놀라 동요되는 일이 없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떤 수행자

그들 부부를 처음으로 만난 곳은 남인도의 안주나 비치 언덕이었다. 바다 방향으로 놓인 긴 벤치에서 그들 부부는 해질녘 석양의 노을을 어깨동무하듯 서로 기대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세찬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고 여인의 밀짚모자가 가볍게 날아갔다. 남자가 일어나 모자를 줍기 위해 갈 때 머리털 한 올 없는 여인은 담담히 그러나 엷은 미소로 남자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넝마차림으로 인도를 떠돌다 안주나 비치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한 달 가량 머물고 있었다. 해변의 언덕, 야자수의 그늘에 앉아 좌선에 몰입하다 다리운동을 위해 가볍게 거닐고 있을 때 그들 부부의 정겨운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이다.

대화 한마디 나눈 적은 없지만 말기 암 치료 중인 여인이 남편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 여행을 인도의 해변에서 보내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죽음을 앞둔 그들의 다가올 이별도 서럽고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내 처지는 그들에게 동정을 보낼 만큼 여유롭지 못할 때이다.

아내 떠나보낸 영국인, 티베트 승려돼
다시 만난 그는 합장으로 인사 했다

말라리아에 쓰러져 죽음의 터널에서 겨우 벗어난 직후였고 환장하고 미칠 만큼 한국의 모든 것이 그리운 향수병에 거식 증세까지 달고 다닐 때였기 때문이다. 그들을 다시 만난 곳은 바라나시의 천민의 살이 기름불에 타는 강변 화장터에서다.

그들 부부는 인도인의 고유의상을 입고 있었고 여인은 더욱 깡마른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남자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반가운 표정으로 '나마스테' 하고 제법 큰 소리로 인사했다.

안주나 비치에서의 며칠의 만남에는 눈인사 정도를 나눈 침묵의 인연인데 그들 부부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부부는 손짓과 눈빛으로 나를 이끌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강변의 레스토랑으로 안내했다. 말없는 대화도 가능했던 것이다.

나의 단골 메뉴인 코리안 누들(신라면)은 그 식당 메뉴판에는 아예 그림자도 찾을 수 없어 팬케이크를 손짓으로 주문했다.

미소로 모든 언어를 대신하고 눈인사로 작별을 나눌 무렵,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두 부부가 관세음보살이 돼 나타났다. 여법하게 차려입은 승복 차림보다 넝마에 가까웠으나 삭발한 머리에 짙은 눈썹으로 향봉일 수 있겠다며 그들 중 한사람이 내게 한국말로 확인한 후 합석하게 된 것이다. 그들 한국인 두 부부는 교사였고 겨울 방학기간 동안 인도에서 자유여행 중 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으로 있다는 한 거사는 어찌나 대화를 잘 풀어 가는지 나의 궁금증이 일시에 풀리고 있었다. 외국인 부부는 예상대로 영국인이었다. 아내가 위암 말기로 희망이 없자 직장에 장기 휴가를 낸 후 아내가 원하는 인도 여행을 하며 영혼의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안주나 비치의 언덕에서 바위처럼 앉아있던 동양 히피가 승려라는 사실에 그들은 역시나 하는 표정이었다.

그 뒤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난 후 나는 티베트인이 모여 사는 라다트 지방의 '레'라는 도시에서, 정확히 말하면 헤미곰파의 천장터에서 영국인 부부 중 남자를 만나게 된다. 헤피곰파는 티베트 사찰인데 그 사찰의 천장터에서 자루에든 시체에 작두 칼질을 해 독수리 먹이로 뿌려주는 일을 영국인 남자가 자청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죽었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달라이 라마를 만나 불교에 귀의했고, 남편은 끝내 영국행을 접고 티베트 불교의 승려가 됐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속 깊이 피멍울로 간직한 채 바람을 닮은 자유인이 되고 싶어 수행자의 길에 접어든 영국인은 나에게 '나마스테'라는 말 대신 합장으로 인사했다.

티베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자루에 넣어 사찰 부근의 천장터로 오게 된다. 그 자루에든 시체를 영국인 수행자는 작두칼로 내리쳐 독수리 밥으로 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미 달관된 초인의 모습으로 생멸의 고통에서 적멸의 자유인을 향해가는 수행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작두칼로 내려치는 것은 관습과 허울을 벗어버린 진공(眞空)의 묘유(妙有)를 찾는 작업일터. 머리털 한 올 없던 그의 아내가 더러는 먹울음 덩이 돼 그의 시야를 흐리게 할지도 모를 일이다. 마날라에서 만나 함께 간 한국인 거사가 띄엄띄엄 통역을 해주었던 것이다.

선한 시주란 무엇일까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㉝ 시주자에게 증장돼야 할 것

施主增長品第六 (시주증장품제6)

悲心起施能與眾生樂聚。如是施主與眾生樂者。勝於解脫名為最勝。施主成他樂。因修悲者於一切眾生得平等心。如是者名為檀越。不能如是施者名為乞者。若行施時使聞者悲泣。是名善施。若不如是不名善主。若行布施能使受者子孫恣意受用歡喜讚歎名健施主。若乞而與不名施主。自往而與名善施主。若捨一切財物愛心而與不名施主。有悲心雖不與物名大施主。(비심기시능여중생락취。여시시주여중생락자。승어해탈명위최승。시주성타락。인수비자어일체중생득평등심。여시자명위단월。불능여시시자명위걸자。약행시시사문자비읍。시명선시。약불여시불명선주。약행보시능사수자자손자의수용환희찬탄명건시주。약걸이여불명시주。자왕이여명선시주。약사일체재물애심이여불명시주。유비심수불여물명대시주。)

번역

시주에게 증장되어야 할 것에 대한 품 제6

자비심으로 일으킨 보시는 능히 중생과 더불어 즐거움을 쌓습니다. 이와 같이 시주자와 더불어 중생이 즐거운 것을 해탈보다 뛰어나되 최고로 수승하다고 부르나니 시주는 타인의 즐거움을 이룹니다. 일체 중생에게 자비심을 닦은 인연으로 평등심을 얻나니,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단월(檀越)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보시하지 못하는 이는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보시를 행할 때 자비심에 감읍하였다는 말을 듣게 하면 이것을 선한 보시라고 부르나니,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선한 시주라고 하지 못합니다. 만약 보시를 행하여 능히 받은 이의 자손들이 마음대로 받아쓰고 기뻐 찬탄하면 굳건한 시주라고 말하나니, 만약 구걸해야 준다면 시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서 주어야 선한 시주라고 하나니, 만약 일체의 재물을 희사하되 아끼는 마음으로 주어서도 시주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비록 재물을 주지 못할 형편이어도 큰 시주라고 부릅니다.

해설

이번 6품 '시주증장품(施主增長品)'은 시주에게 증장되어야 할 것에 대해 설명한 품이다. 선한 시주란 어떤 보시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거듭 말하지만, 보시의 바탕은 자비심이다. 누군가에게 보시할 때 자비심이 바탕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보시가 선한 보시인지 중생심의 보시인지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시주자와 구걸하는 이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경지가 되면, 이런 기쁨의 경지를 해탈의 경지보다 뛰어난 수승한 경지로 본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등(正等)'은 '바르고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자비의 보시를 행하여 자비심을 닦을 때 이 '바르고 평등한' 경지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깨달음은 단순히 무언가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의 현실적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실천이 없는 앎은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아울러 그 실천은 바로 자비심으로 행하는 보시의 마음이다.

재물의 양으로 시주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는 보시가 단순히 구걸하는 이에게 재물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해탈해야만 또한 진정한 시주자이기 때문이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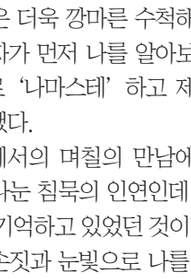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참행복으로 가는 무소유의 생활선법(生活禪法)

화제의 신간 禪과 무소유



일상생활 전체가 선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좋든 싫든 간에 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선의 특색이다. 그래서 **선은 상식을 초월한다.** 그리고 초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초월이라는 그것마저 초월하는 것이 참된 선이다.

선은 사색하는 것이 아니며 추상적 명상 또한 아니다. 그것은 **일체의 지식과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다.**

왜 그대는 그렇게 많은 것을 축척하는가
왜 그대는 그렇게 많은 관념들을 집착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대가 가득차 있다고 느끼기 위함이다.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정가 15,000원

법성요해 法性了解

깨달음의 궁극, 원융일심 화엄실상 법성지혜를 밝힌 책

▣ 원융불이 이사원융 사사무애 실상법계 일심의 깨달음세계를 이 책에 밝혔다.

♠ 화엄실상, 원융일지(圓融一智) 일심요의(一心了義) 각성의 실상을 밝게 드러내어 밝혔다.
♠ 깨달음 지혜로 일심, 일성, 일각의 실상을 정의하며, 일심원융세계를 밝혔다.
♠ 각종 차별개념과 중용, 중도의 실상과 그 차별 차원을 밝혔다.

신국판 | 세웅스님 역저 | 464쪽 | 정가 25,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세웅스님 역저 /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